

IT KOREA 미래전략

미래 IT 끊김 없는 서비스 제공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환경오염 감시 체계, 재난 재해 예방시스템의 안전, 환경감시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인간과 기기, 기기 상호간 정보 교환과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의 지능형 통신서비스가 개발 될 것이다.



* 미래기획위원회 제5차 보고회, 가운데 중앙 이명박 대통령, 왼쪽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 오른쪽 윤종용 한국전자정보통신진흥회장

융합의 메가트랜드 대응과 IT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IT KOREA 미래 전략」을 제시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며, 글로벌 경제위기에서 우리경제 회복을 선도하고 있는 IT업계를 격려하기 위해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9월 2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 곽승준) 5차 회의(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

서 국가 제1의 성장동력인 IT산업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종합적인 미래비전과 실천전략이 제시되었다.

IT산업이 국가 제일의 성장동력

지식경제부장관, 방송통신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IT관련 산·학·연 관계자 1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보고회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IT산업에 대한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인 청사진을 기초로 “IT가 곧 미래 한국의 힘”이라는 인식 하에, 정부와 민간이 이같은 비전을 함께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세부전략과 구체적인 투자계획이 논의되었다.

“IT산업의 미래비전”은 안철수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이, 그리고 “실천전략”은 지식경제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표하였으며, 현대중공업, 삼성테크윈 등 민간기업들이 “기업 차원의 발전전략과 액션플랜”을 설명한 데 이어 참석자간 토론이 이뤄졌다.

이명박 정부의 IT비전

IT 융합과 고도화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

대·중소·벤처기업 동반성장을 통한 기술혁신과 고용창출

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10대 IT융합 전략산업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 SW	주력 IT기기의 글로벌 공급기지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서비스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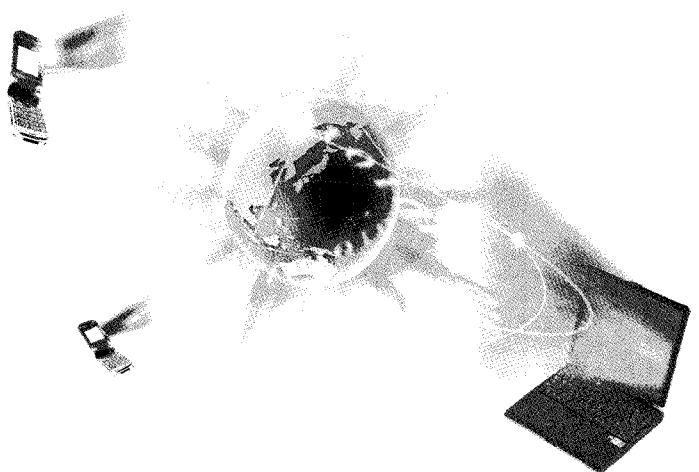
- 지식경제부 및 방송통신위원회 출범
- IT분야 통합 진흥기관 출범
- 기술서비스산업의 융합 추세에 대응
 - 전산업과 IT의 융합
 -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활성화

nipa

주요 보고내용으로는, 미래의 IT는 종전의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에서 '인간과 사물간의 의사소통'으로 확장되어 모든 것이 네트워크화(만물지능통신망)되는 등 삶의 방식이 획기적으로 바뀌고, 또한 다른 산업과 융합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할 것이다.

5대 핵심전략: IT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IT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IT융합, S/W, 주력IT, 방송통신, 인터넷 등 5대 핵심전략을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정부와 민간은 향후 5년간(2009~2013) 189.3조원(정부 : 14.1조원, 민간 : 175.2조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민간 투자규모는 160여개 IT기업(IT전체 생산액의 93%)의 실제 투자계획을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가 조사한 것이다.



① 10대 IT융합 전략산업은 조선, 에너지, 자동차 등 10대 전략산업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자동차 등 산업융합 IT센터 설치를 확대(09년 3개 → 12년 10개)하고 국가 SOC에 IT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인프라 구축 마스터플랜」을 수립(09년말)한다. 융합 경쟁력의 원천인 시스템 반도체를 세계 일류수준으로 육성한다.

산업경쟁력 원천 S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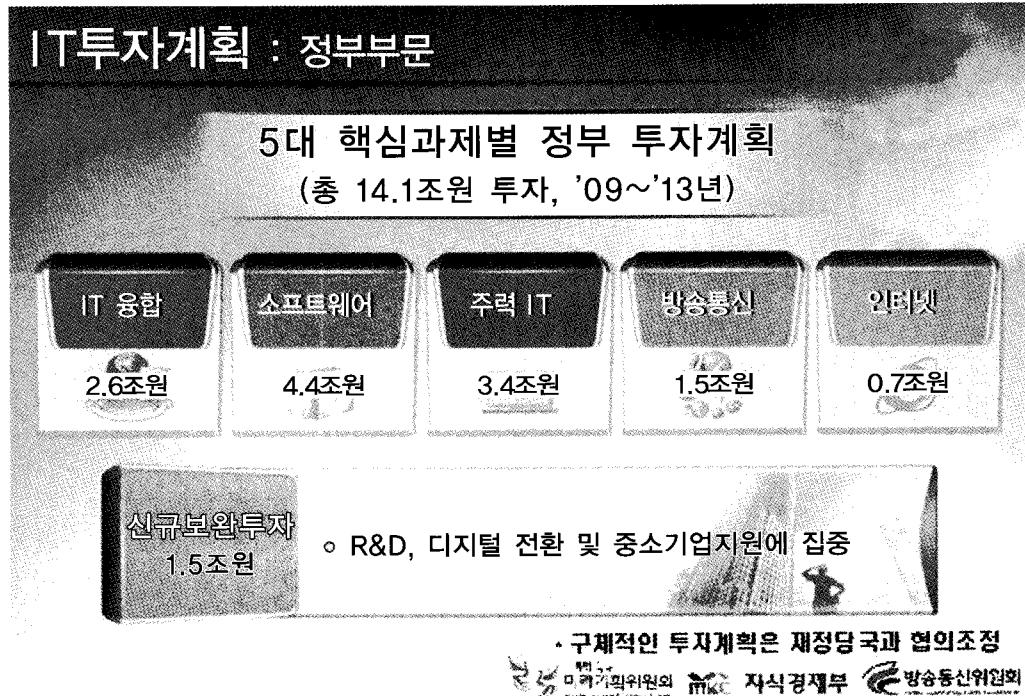
② 산업경쟁력 원천으로서 SW는 글로벌 수준의 SW기업을 육성하자는 것이다. SW장학생 선발 등을 통해 차세대 SW리더를 양성하고 “SW공학센터”를 설립 ('09년 9월)하여 품질경쟁력을 강화한다. 휴대폰, 스마트폰 등에 사용되는 “개방형(Open Source) 모바일 OS 개발” 등 새로운 SW Flagship 프로젝트를 민관 공동으로 추진한다. 불합리한 시장 구조를 혁파하기 위해 SW분리 발주를 의무화하고 불법복제

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③ 주력 IT의 세계적 공급기지는 3대 품목(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세계 1위 달성을 하자는 것이다. 민관 공동의 차세대 메모리 R&D를 추진하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및 이동통신 특허 및 표준을 선점한다. 대기업의 구매와 연계한 R&D 등을 통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LED, 방송, 네트워크 등 5대 장비산업에서 중핵기업을 육성한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의 세계 1위 달성

④ 편리하고 앞선 방송통신 서비스는 WiBro/IPTV/3DTV시장의 조기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와이브로망 사업성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며, 2010년까지 모든 교실, 병영생활관에 IPTV를 연결한다. 2012까지 아날로그방송을 디지털 TV방송으로 전환하고 2011년 대구 세계육상선수



【분야별 5년간 민간 투자계획】

(단위 : 조원)

분야	반도체	디스플레이	통신·정보기기	가전	전자부품	통신서비스	기타
합계	41.7	57.4	20.3	10.4	7.0	35.6	2.8

권 대회를 계기로 3DTV 실험방송 실시한다.

⑤ 더욱 빠르고 안전한 인터넷은 안전한 초광대역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2012년까지 현재보다 10배(1 Gbps) 빠른 초광대역 네트워크 구축하고 미래 인터넷 개발에 본격 착수하자는 것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사이버테러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정보 보안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IT KOREA 미래전략 실행을 위해 정부와 민간은 향후 5년간(2009~2013) 189.3조원(정부 : 14.1조원, 민간 : 175.2조원)을 투자해 나가기로 하였다.

정부 투자 14조원, 민간 175조원

정부는 투자금액 14.1조원 중 12.6조원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였고, 정보통신진흥기금과 방송통신발전기금 확충을 통해 새로이 1.5조원의 재원을 마련하여 IT융합, SW, IT장비, 방송통신서비스(디지털전환 등) 분야 중소기업 지원에 집중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구체적인 투자계획은 재정당국과 협의·조정한다. 정부의 투자에 대응하여, 민간도 175.2조원(설비 : 109.7조원, R&D : 65.5조원)을 투자하여 우리 IT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민간투자액은 전자정보통신산업 진흥회가 160여개 IT기업(IT전체 생산액의 93%)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이다.(국내 최초로 IT분야의 민간

기대효과 및 전략목표

기대효과

- '13년 IT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잠재성장을 0.5%p ↑

전략목표

융합

- 국내생산 1조원 이상 IT융합산업 10개 창출
- 주력산업 고도화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 촉진

방송통신

- 세계 최고 수준의 방송서비스 제공
-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세계 1위 달성

SW

- 글로벌 100대 IT서비스기업 6개 육성
- 글로벌 100대 패키지SW기업 2개 육성
- 매출 1,000억원 이상 기업 27개 육성

인터넷

- 10배 빠른 초광대역 융합망(UBcN) 구축
- 세계 최고의 정보보호 대응센터 구축

주력IT

- 3대 주력 품목 세계 시장점유율 1위 달성
- 5대 IT장비산업 국산화 및 세계시장 점유율 2배 달성



투자계획을 조사).

IT 5대 핵심전략의 추진으로 제조, S/W, 서비스 등 IT산업의 각 부문간 균형된 발전이 이루어지고,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을 견인(2013년 잠재성장을 0.5%p 상승 예상)할 것으로 기대된다.

IT융합 : 1조원 기업 10개 창출

핵심 전략 부문별 2013년 목표로, IT융합은 국내생산 1조원 이상 IT융합산업 10개 창출이다. SW는 국내 8개 기업을 “글로벌 100대 기업”으로 육성(IT서비스 6개, 패키지 SW 2개), 1,000억원 이상 매출기업 27개 육성한다.

주력IT는 3대 주력 품목 세계시장 점유율 1위 달성, 5대 IT장비산업 국산화·세계시장 점유율 2배 달성하고, 방송통신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통서비스 제공하며, 인터넷은 초광대역 융합망(UBcN) 및 세계 최고의 정보보호 대응센터를 구축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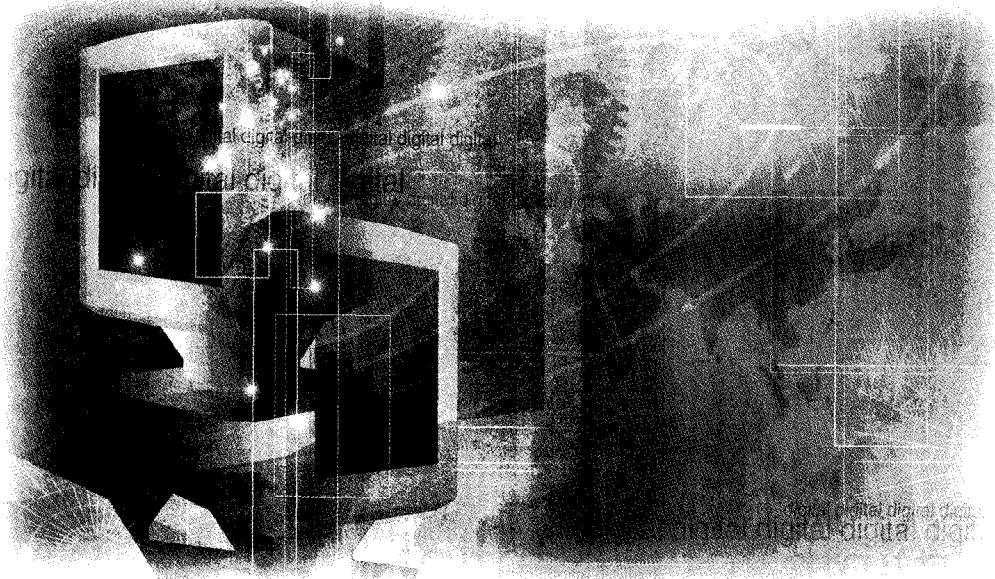
IT의 현재와 미래를 보면, 트랜드에서 IT네트워크는 현재 인간과 인간의 의사소통을 하면서 빠르고 편리한 광대역 통신망, 초고속인터넷이나 광대역통합망을 들 수 있다. 미래에는 인간과 사물간의 의사소통으로 만물 지능통신망을 개발하여 인간과 인간에서 인간과 사물과 사물간으로 확장될 수 있다.

IT산업의 성장기여율 23.4%

IT산업에서는 성장산업으로서 IT를 볼 때 국내 IT GDP성장기여율은 2008년 23.4%였다. 미래에는 전산업과 융합하는 IT로서 IT 융합을 통한 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할 것이다.

IT활용 측면에서, 현재 IT기술의 단편적 적용으로 요금 자동징수, 물류전산화 등을 들 수 있다. 미래에는 사회간접자본의 지능화로서 지능형 교통체계, 스마트그리드 등을 들 수 있다.

미래IT기술을 살펴보면, IT기술은 이동, 지능, 내재



성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이동성으로 때와 장소, 대상에 구애받지 않고 끊김 없는 통신이며, m-Banking, m-IPTV 등이다. 지능화란 이용자 수요의 맞춤형 지능기반 정보 서비스이며, 스마트 단말기, Humanoid Robot 등이다. 내재화란 제품, 서비스의 융합을 통한 신가치 창출이며, 임베디드 SW, 무인자동차 등이다.

미래IT 끊김없는 서비스 제공

미래IT서비스 측면에서는, 끊김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 IT를 활용한 신산업을 창출하자는 것이다. 건강한 삶을 위해 건강 상태의 상시 점검 및 원격 진료와 만성질환 모니터링 및 적기 대응에 맞는 유헬스의 첨단의료서비스가 개발될 것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환경오염 감시 체계, 재난 재해 예방시스템의 안전, 환경감시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원활한 정보교환을 위해 인간과 기기, 기기 상호간 정보 교환과 완벽한 개인정보 보호 및 시스템 보안의 지능형 통신서비스가 개발 될 것이다.

IT를 활용한 미래 생활상의 한 예로서, 아침에는 기상과 동시에 생체정보 체크후 원격 의료를 이용하고 날

씨 등에 따른 가상 의상을 코디하는 U-홈이다. 오전에는 지능형 전기자동차로 이동후 무인주차하고 이동 중 취대 정보를 수집하는 유모빌리티이다.

고등학교에서 이북, 교육용 로봇 등을 활용한 영어교육 협장을 취재하고 휴대기기를 이용한 멀티미디어 기사 작성 및 송부하는 U-오피스이다. 스마트 냉장고가 추천한 메뉴로 저녁식사를 준비하고 실감형 드라마 시청중 의상을 쇼핑하는 유라이프를 즐길 수 있다.

경제위기 극복의 일등공신

우리 IT산업의 현실은 과거에도 주요한 성장동력이고 현재도 경제위기 극복의 일등 공신이다. SW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정보보호 기반이 취약하다. 기기분야에서 성과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이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범용제품, 공정기술 중심의 성장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서비스분야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서비스가 성과이며, 신규 서비스 활성화 지역이 문제점이다. 인프라에서는 선진 방송통신 네트워크가 성과이고, 정보보호 기반이 취약하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